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513430742177>

2022.07.16.

시신 이송 지원...장례비 지원도

1. 장기적출 끝, 시신 가져가라"...유족 마음 두 번 찢는 일, 막는다

머니투데이

가. [다시 핀 꽃-장기기증]③기증자 예우, 어떻게 달라졌나
[편집자주] 장기기증자 유족들은 창작곡 '선물'에서 세상 떠난 기증자를 '꽃'이라 불렀다. 꽃이 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누군가는 뇌출혈을 겪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이들이 남긴 선물에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장기 기증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루 평균 6.8 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장기기증자 유족과 이식인에게 '장기기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2017년 병원이 장기기증자 시신 처리를 가족에게 떠밀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증자 아버지는 한 병원이 24세 아들 장기적출을 마치고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 모두 가족 몫이었다. 아버지는 장례식장 구급차를 불러 아들을 태웠다. 병원 직원 없이 혼자 구급차에 올랐다. 이어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신을 손으로 잡았다고 했다.

기증자 예우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은 시신 이송 등 유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은 장기이식을 하는 전체 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해졌다.

이런 문제는 장기기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도화선이 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장기기증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최근 8년간 뇌사 장기기증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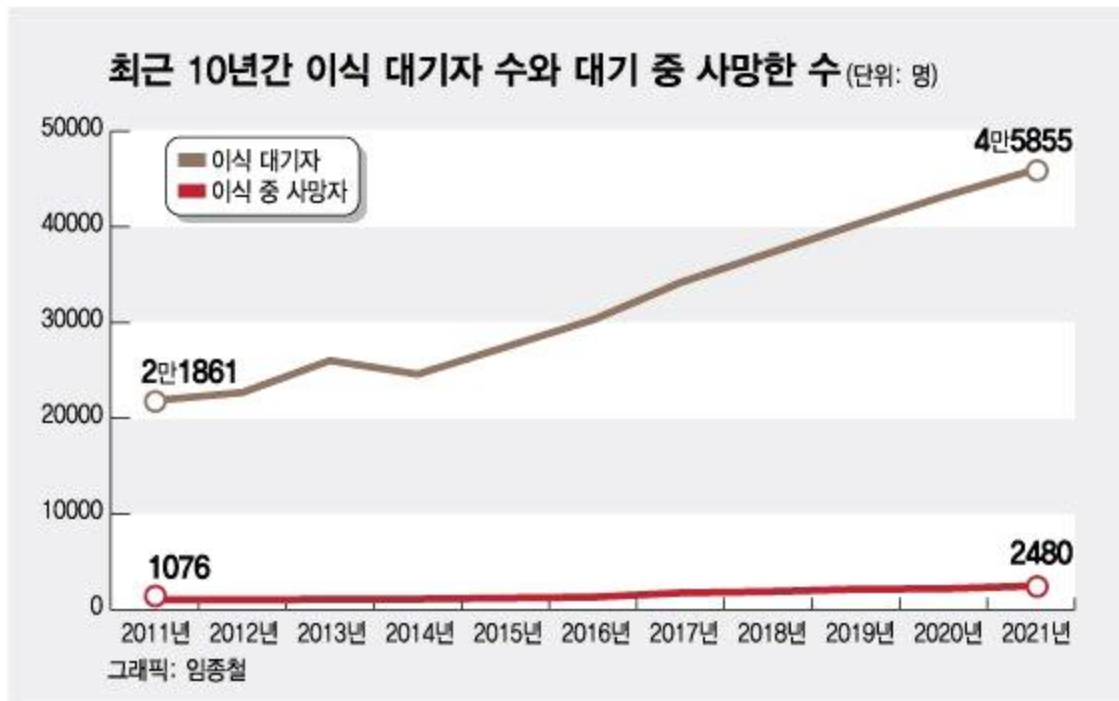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결국 2017년 장기기증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5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으로 500명을 못 넘고 있다.

반대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늘었다. 이식대기자는 2016년 3만 286명에서 2017년 3만 4187명, 2018년 3만 7217명, 2019년 4만 253명, 2020년 4만 3182명, 2021년 4만 5855명으로 증가세다.

결국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늘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1년 1076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10년 사이 두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사망한 이식 대기자는 6.8명으로 계산된다.

시신 이송 지원...장례비 지원도



장기기증자 예우가 미흡해 기증 신청이 줄어드는 현실을 이식 경험자들도 이해하는 분위기다. 김지은씨(38)는 심전비대증을 갖고 태어나 2017년 심장 이식을 받았다. 그도 "기증자 시신을 가족에게 수습하라는 한 병원 얘기가 보도되고 기증자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했다"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이해도 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했다.

장기기증 유관기관들은 2017년 문제제기 후 유족 지원이 개선됐다고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병원도 기증자와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실제로 기증원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2017년 230 명에서 2018년 408 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1021 명이다.

현재 장기기증 유족은 △시신 이송 △경제·법률 상담 △장례식장, 관공서에 사회복지사 동행 △조화, 슬픔극복 도서, 기증자 앨범 등 예우 물품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기상황 대비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장기기증을 한 후 다른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때도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 지역은 시신을 이송할 때 동승자도 지원한다. 지난해 234 가족이 이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만족도는 100 점 만점 중 평균 88.2 점을 줬다.

아울러 장례비와 제사비, 기증 전 진료비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도 한다.

장기기증 신청은 기증원이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증원 관계자는 "기증자의 생명 나눔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정부, 병원들과 협력해 유족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시신은 알아서"는 옛말... 기증자 예우 개선됐다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가 -

가 +

2021/10/06 17:00

지난 2017년, 장기 기증자에 관한 미흡한 예우 시스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심사숙고해 고인의 장기기증을 결심했지만, 기증 수술 후 시신 수습과 이송은 유가족의 몫으로 돌아왔던 것. 실제 2016년 장기기증자 573명 중 63%는 기증 후 전문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2018년부터는 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인다. 내년부터는 국가로 한정됐던 예우 사업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는 기증원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자에게 예우를 제공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흡했던 '기증자 예우'... 이송지원 사업 등으로 개선돼

미흡한 기증자 예우 관리 현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단체들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김윤식 홍보팀장은 "당시 협약을 맺지 않은 몇몇 병원에서는 기증자 예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침이 변경돼 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장기기증 후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신규 유가족은 21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08명으로 상당 수준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뇌사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5월부터는 일부 지역(서울,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에 한해 동승 담당자도 함께 탑승한다. 지난해 기준 240건의 이송지원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71건은 담당자가 동승해 유가족을 안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송지원을 받은 146명의 유가족을 자체 설문한 결과, 심리적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6점으로 나타났다.

◇장제비 등 최대 540만원 지원금, 심리 상담도 돕는다

기증자 예우는 크게 지원금과 가족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뇌사 장기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은 장제비,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단체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상황에 따라 장제비, 진료비 등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자 등록을 했지만 사후 기증하지 못했더라도 장제비 360만원을 지원한다. 살아있는 사람 간 이식의 경우에도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식했다면 정기검진 비용과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지원금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면서 이전보다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예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선 유가족을 위한 상담, 복지서비스, 예우 사업도 진행한다. 기증 후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화·방문상담 ▲위기상황별 지역사회자원연계 ▲도서지원 서비스 ▲기증자 앨범(액자) 제작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증자 가족모임이나 추모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이라면 언제든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2월, 기증자 예우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될 것"

이듬해부터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지원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돼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권고안에는 지자체 소유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기 이식 후 사체를 방치한다..?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8Uc0op9cz1E>

2020. 10. 22

기증하신분 뿐만 아니라, 의료진 분들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장기기증 참여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9개월 전

최근에는 장기 기증자 예우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기도 했고, 표준 가이드가 있다고 해요. 이런 기증자 예우를 통해 장기기증의 가치가 존중되면 좋겠어요!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가 많이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순희

1년 전

기증하신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님들께도 존경합니다
**저는 골수기증을 받았읍니다 2010년도니깐 꼭 10년 지났네요 이름도
몰지만 그분께 문득 문득 생각날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증자분님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진리는나의빛

1년 전

절대 장기 기증하지 말라~~~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으면.

Ji Eun Barham

1년 전

**그치만 기증자의 시신처리는 가족들 100프리하네여 이걸 장례식장
이라든지 등 유가족에게 해드려야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ㅜㅜ**

나영원

1년 전

장기기증..

연명치료 중단은 작성했지만 장기기증은 생각이 없습니다. 죽을무렵에 내 신체에 칼대긴 싫습니다.

따끄

9개월 전

간단하다 장기기증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도 장기기증 서약하고 권유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된다 지들은 했나?

1년 전(수정됨)

작년 의사협회 놈들이랑 국시 거부 의대생 들만 봐도 알지....절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족속들이 아냐~

8개월 전

장기기증했는데 하지말아야겠네요

Galaxy

9개월 전

진짜.. 이건 욕나오는거다..

장기기증후 시체는 가족들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니..

사전에 말한마디 없고 장기 가져가고 시체 처리는 유가족들이 알아서하라?

그러면서 기증 하라고 지금 이런영상 올리는건가?

진짜.. 역겹다.. 표현이 모자르다